

## 쌀 및 밀 복합분의 물리적 성질 및 제빵시험

이 춘 영 · 김 성 곤\* · 피 이 마스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곡류공학연구실\*

호주 제빵연구소\*\*

(1979년 2월 1일 수리)

## Rheological and Baking Studies of Rice-Wheat Flour Blends

Chun Yung Lee, Sung Kon Kim\* and P. E. Marston\*\*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Food Grain Technology Lab.,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Bread Research Institute of Australia, N.S.W., Australia\*\*

(Received February 1, 1979)

### Abstract

Rheological and baking properties of blends containing 10, 20 and 30 % of rice flours (Milyang 23, non-waxy and Tongil waxy) with wheat flour were investigated. Milyang-wheat blends showed higher amylograph paste viscosities at all reference points than waxy-wheat blends. Rice-wheat flour blends had shorter farinograph stability than wheat flour; however, the dough development time was similar between two blends. Breads produced from either Milyang-wheat or waxy-wheat flour blends at 10% rice level were acceptable compared with breads produced from wheat flour.

### 서 론

제빵에 있어서 복합분의 활용은 과거 10~15년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사가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복합분이란 밀가루에 밀 이외의 가루를 혼합한 것을 가리킨다. 복합분의 원료로는 카사바, 감자등 tuber 이외에 보리, 수수, 옥수수 같은 곡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복합분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그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최근 영국의 열대산물연구소는 복합분의 이용에 관한 문헌을 정리, 보고하였다.<sup>(1)</sup>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수년간 밀의 수입을 제한하고, 밀을 이용한 제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복합분을 이용한 많은 연구<sup>(2-12)</sup>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제빵에 있어서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내 작물은 쌀보리로 보고되어 있다.<sup>(3,9)</sup> 그러나

쌀보리를 이용한 복합분으로 제빵하는 경우 빵의 용적 및 내부 특성이 밀가루 빵보다 열등하며 또한 staling 속도도 빠른 결점이 있다.<sup>(12)</sup>

쌀을 이용한 복합분의 활용은 외국에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El Saadany 등<sup>(13)</sup>은 제빵 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질 밀에 쌀 전분을 6~8% 첨가하므로서 반죽의 물리적인 성질이 개선될 수 있으며 빵의 용적도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Seyam 및 Kidman<sup>(14)</sup>은 옥수수, 카사바 및 쌀전분을 이용하여 제빵 적성을 검토한 결과 쌀전분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쌀전분을 함유한 빵의 식미는 밀가루 빵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서 우선 쌀 및 밀 복합분의 물리적 성질 및 제빵 적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쌀은 밀양23호와 통일찹쌀을 사용하여 멘쌀과 참쌀의 제빵 적성을 비교 검토하

였다.

### 실험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밀가루는 시판 강력분을 사용하였고 쌀가루는 시판 백미(밀양 23호 및 통일찹쌀)을 Wiley mill을 사용하여 80 mesh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은 수분 14%로 환산할 때 12.98%였다.

복합분은 밀가루에 쌀가루(밀양 23호 또는 통일찹쌀)를 10, 20 및 30% 수준으로 대체, 혼합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 복합분의 호화양상

밀가루 및 복합분의 호화양상은 AACC법<sup>(15)</sup>에 따라 Amylograph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 시료의 농도는 11.1%를 사용하였다.

#### 반죽의 물리적 성질

밀가루 및 복합분의 반죽의 물리적 성질은 AACC법<sup>(15)</sup>에 따라 Farinograph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는 50g(14% 수분기준)을 사용하였다.

#### 제빵시험

밀가루 및 복합분의 제빵은 no-time dough 방법을 사용하여 rest time 27°C에서 20분, proofing time 32°C에서 60분, baking time 240°C에서 15분의 조건으로 행하였다.

반죽은 "National" pin mixer (National Manufacturing Co., Nebraska, U.S.A)로 행하였으며 반죽 시간은 2분 40초, 3분 및 3분 20초를 사용하여 반죽 시간이 제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빵에 사용한 원료 혼합비는 다음과 같다.

밀가루 또는 복합분	100%
물	60%

효모	2.5%
소금	2.0%
지방	3.0%
설탕	5.0%
Potassium bromate	30 ppm
Ascorbic acid	100 ppm
L-Cysteine-HCl	20 ppm

예비시험 결과 cysteine은 20 ppm이 적당하였고 이 때 복합분은 쌀가루 첨가량에 관계없이 가수율 60%에서 반죽의 성질이 가장 좋았다.

빵의 용적은 빵을 실온에서 1시간 식힌 후 종자치환법<sup>(16)</sup>으로 측정하였고 빵의 내관 및 외관은 제빵 24시간 후에 육안으로 검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복합분의 호화양상

밀가루와 복합분의 호화양상은 Table 1과 같다. 밀가루의 초기호화온도는 65.5°C로서 이는 밀양과 비슷하였으나 찹쌀(61.0°C) 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밀양 또는 찹쌀을 함유한 복합분의 경우 초기호화 온도는 모두 밀가루와 같은 65.5°C이었다. 이는 복합분의 경우 쌀(밀양 또는 찹쌀)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호화는 동일한 온도에서 일어남을 가리킨다.

밀양의 최고점도는 2,300 BU 이상으로서 이는 통일찹쌀 및 밀가루보다 각각 2배 및 6배이상 높았다. 밀—밀양 복합분의 경우 최고점도는 밀양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으나, 밀—찹쌀 복합분의 경우는 그 반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최고점도시의 온도는 밀가루 및 복합분간에 차이가 없이 일정하였다.

92.5°C에서 15분후의 점도는 밀—밀양 복합분의 경

Table 1. Pasting properties of rice-wheat flour blends

Source	Initial pasting temperature (°C)	Peak height (B.U.)	Temperature at peak height (°C)	Height after 15 min at 92.5°C (B.U.)	Height at 50°C (B.U.)
Milyang 23 (M)	64.5	>2300	89.5	740	1330
Tongil waxy (T)	61.0	1040	67.0	420	620
Wheat flour (W)	65.5	350	90.0	200	490
W (90)-T (10)	65.5	430	90.5	250	610
W (80)-T (20)	65.5	500	91.0	280	630
W (70)-T (30)	65.5	550	90.5	300	700
W (90)-M (10)	65.5	310	90.5	190	460
W (80)-M (20)	65.5	280	91.0	200	420
W (70)-M (30)	65.5	250	90.5	190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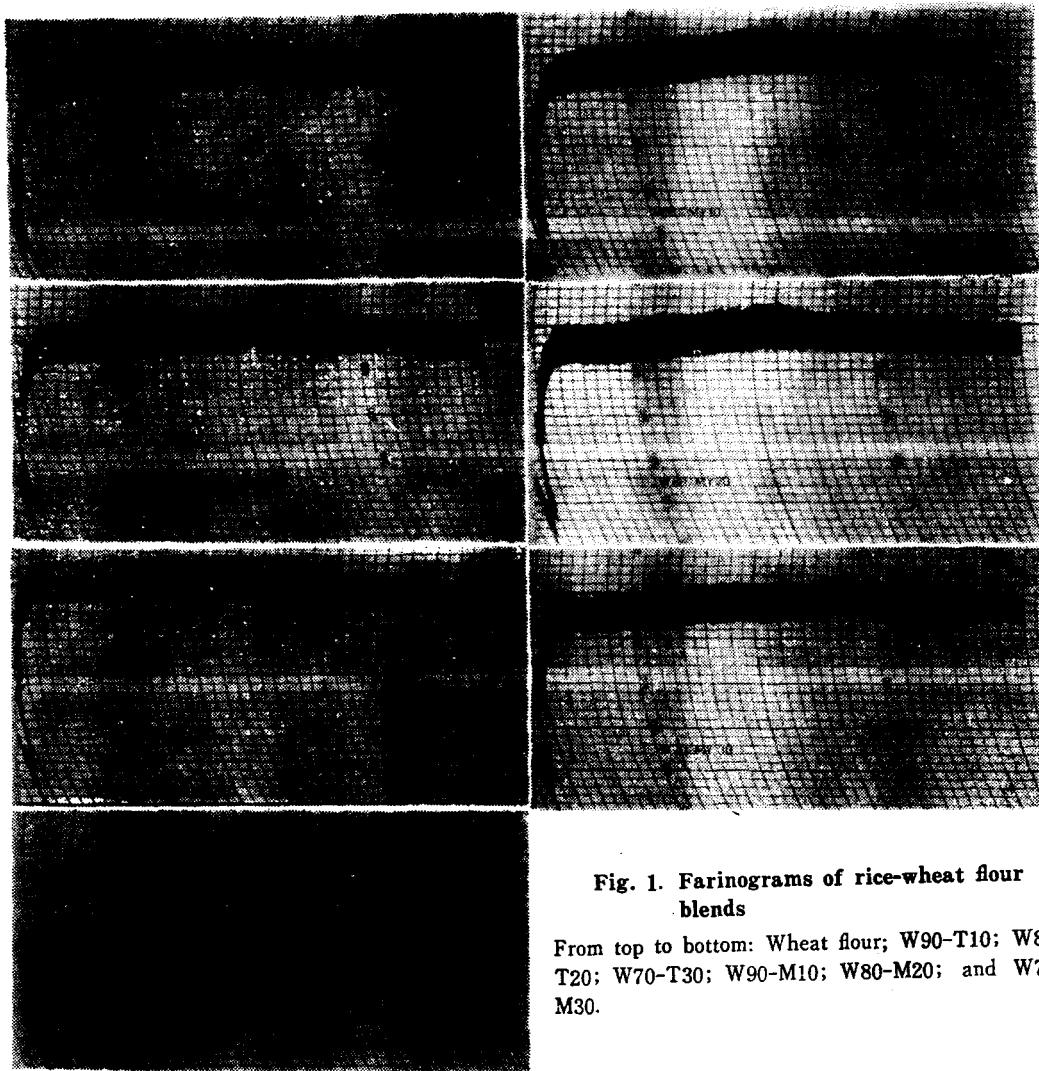


Fig. 1. Farinograms of rice-wheat flour blends

From top to bottom: Wheat flour; W90-T10; W80-T20; W70-T30; W90-M10; W80-M20; and W70-M30.

우 밀가루보다 높았고 밀양 첨가량이 높을수록 점도도 증가하였으나, 밀-찹쌀 복합분의 경우에는 칩쌀 첨가량에 상관없이 밀가루와 동일하였다. 50°C에서의 점도는 밀-밀양 복합분의 경우 밀양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으나, 밀-찹쌀 복합분의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을 보였다.

밀-밀양 복합분은 최고점도, 92.5°C에서 15분후의 점도 및 50°C에서의 점도가 모두 밀-찹쌀 복합분보다 높았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쌀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점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때 밀-찹쌀 복합분으로 만든 빵이 밀-밀양 복합분으로 생산된 빵보다 보존성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 반죽의 물리적 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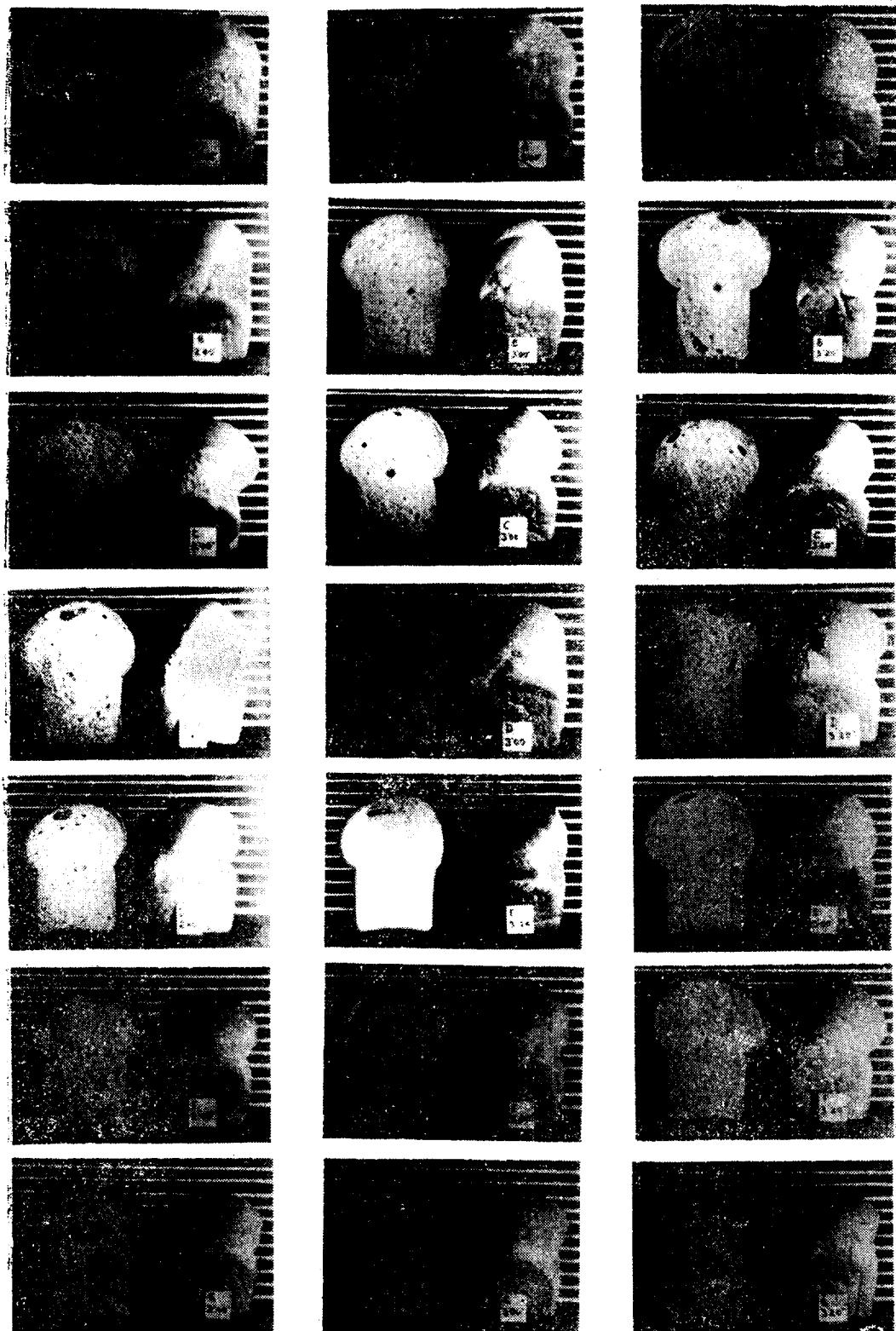
밀가루 및 복합분의 farinogram은 Fig. 1과 같다. 밀

—밀양 복합분의 경우 반죽의 안정도는 밀양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밀-찹쌀 복합분의 경우 안정도는 밀-밀양과 같이 쌀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였으나 그 정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적 반죽발전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복합분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반적인 farinogram의 결과로 볼 때 실제 제빵시 반죽 시간은 제빵에 중요한 인자가 되리라 판단된다.

#### 제빵성적

여러 반죽 시간을 이용하여 밀가루 및 복합분으로부터 생산된 빵의 외관 및 내관은 Fig. 2와 같으며 성적은 Table 2와 같다. 밀가루로 만든 빵은 모든 면에서 양호하였다.

밀-찹쌀 복합분으로 생산된 빵의 경우 칩쌀을 10% 첨가하는 경우 용적이 감소하였으며 조직도 밀가루



**Fig. 2. Cut loaves produced from rice-wheat flour blends with various mixing times**

From top to bottom: Wheat flour; W90-T10; W80-T20; W70-T30; W90-M10; W80-M20 and W70-M30.

Table 2. Baking data on rice-wheat flour blends

Source	Mixing Time (min)	Loaf Volume (cc)	Score					Total
			Volume	Appearance	Texture	Crumb color		
W (100)	2.40	780	37	15	20	8	80	
	3.00	845	39	16	23	8	86	
	3.20	780	39	17	19	8	81	
W (90)	2.40	695	32	14	18	7	71	
	3.00	705	33	15	20	7	75	
T (10)	3.20	720	34	15	20	8	77	
W (80)	2.40	650	30	11	14	6	61	
	3.00	650	30	12	13	7	62	
T (20)	3.20	685	32	14	17	7	70	
W (70)	2.40	635	29	11	12	6	58	
	3.00	640	29	10	12	7	58	
T (30)	3.20	650	30	11	13	7	61	
W (90)	2.40	740	36	16	18	7	77	
	3.00	750	36	15	21	8	80	
M (10)	3.20	685	32	14	19	7	72	
W (80)	2.40	650	30	13	16	7	66	
	3.00	700	33	14	17	7	71	
M (20)	3.20	710	33	14	18	8	73	
W (80)	2.40	600	27	9	15	7	58	
	3.00	650	30	10	18	7	65	
M (30)	3.20	650	30	11	16	7	64	
Maximum	—	900	40	20	30	10	100	

빵에 비해 다소 달랐다. 그러나 빵의 외관은 양호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좋은 제빵 적성을 보였다. 찹쌀을 20% 및 30% 첨가하는 경우 빵의 질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빵의 용적 및 조직이 나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빵의 용적을 무시한다면 찹쌀을 이용한 복합분으로 제빵하는 경우 20%정도까지는 제빵에 큰 영향없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밀—밀양 복합분으로 생산된 빵의 경우 용적이 밀가루 빵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아주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밀양을 20% 및 30% 첨가하는 경우 빵의 질은 밀—찹쌀 복합분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실험 결과를 보면 밀양 또는 찹쌀을 이용한 복합분으로 제빵하는 경우 20%정도의 밀가루 대체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대체율은 초기 밀가루의 강력성 및 빵의 용적이 문제가 된다.

본 실험에 사용한 빵으로는 빵의 저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었으나 예비 시험 결과 밀—찹쌀 복합분 빵이 밀—밀양 복합분 빵보다 저장성이 좋았다. 이 결과는 복합분의 호화 양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밀—찹쌀 복합분의 점도가 밀—밀양 복합분의 점도보다 낮은데 기인하는 것이다(Table 1). 한편 반죽시간이 제빵 적성에 미치는 영향은 farinogram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크지 않았으며 대체로 밀—찹쌀 복합분의 경우에는 3분, 밀—밀양 복합분의 경우에는 3분 20초가 적당하였다(Table 2). 본 실험에 사용한 쌀가루(80mesh)는 밀가루보다 그 입자가 크기 때문에 반죽시 잘 혼합이 안되는(즉 수화가 느린)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반죽 시간을 3분 20초이상 연장하여도 제빵성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 요약

밀가루에 맵쌀(밀양 23호) 또는 통일찹쌀 가루를 10,

20 및 30% 대체한 복합분의 물리적 성질 및 제빵 적성을 검토하였다. 밀-밀양 복합분은 밀-찹쌀 복합분 보다 높은 점도를 보였다. 복합분의 파리노그라프 안정성은 밀가루 보다 짧았으나 최적 반죽발전 시간은 비슷하였다. 제빵 적성은 밀-밀양 복합분이 다소 좋은 결과를 보였고 대체로 쌀가루(멥쌀 또는 찹쌀)를 20% 수준까지는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수준으로는 밀가루 빵에 크게 손색이 없는 제품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작물개량연구소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참 고 문 헌

- 1) Dendy, D. A. V., Kasasian, R., Bent, A., Clarke, P. A. and James, A.W.: *Composite Flour Technology Bibliography* (2nd ed.). Trop. Products Inst.: London (1975).
- 2) 한관주, 장재선, 김규식 : 농사시험연구보고(농촌진흥청), 7, (1) 241 (1964).
- 3) Kim, H. S., Kim, S. K., Lee, K. Y., Woo, C. M., Ahn, S. B. and Lim, Y. S.: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Seoul), R-72-31 (1972).
- 4) 김형수, 이관영, 김성기, 이서래 : 한국식품과학회지, 5, 6 (1973).
- 5) 김형수, 김용희, 우창명, 이서래 : 한국식품과학회지, 5, 16 (1973).
- 6) 김형수, 안준복, 이관영, 이서래 : 한국식품과학회지, 5, 25 (1973).
- 7) 장경정, 이서래 : 한국식품과학회지, 6, 65 (1974).
- 8) 김형수, 오정석 : 한국식품과학회지, 7, 187 (1975).
- 9) 권태완, 최홍식, 유정희, 조재선, 변유량, Snyder H. E.: 한국과학기술연구소보고서, BS-F-17-744-5 (1976).
- 10) 최홍식, 유정희, 권태완 : 한국식품과학회지, 8, 236 (1977).
- 11) 김형수, 이희자 : 한국식품과학회지, 9, 106 (1977).
- 12) Kim, S. K., Cheigh, H. S., Kwon, T. W., D'Appolonio, B. L. and Marston, P. E.: *Korean J. Food Sci. Technol.*, 10, 11 (1978).
- 13) El Saadany, R. M. A., Foda, Y. H. and El Saadany, F. M.: *Die Staerke*, 27, 198 (1975).
- 14) Seyam, A. M. and Kidman, F. C.: *Baker's Dig.*, 49 (2), 25 (1975).
- 15)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Approved Method of the AACC*. The Association: St. Paul, Minn. (1962).
- 16) Griswold, R. M.: *The Experimental Study of Foods*,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62).